

“마음 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독일 성지순례단 41명 방한 “눈길”

한마음선원서 대행스님과 수행문답 불국사등 고찰 참배...영적 갈증 해소

“큰스님, 반 친구들에게도 마음 공부를 알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7살바기 모리스)
“친구들도 비유하자면 같은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너의 마음이 친구들과 같아지면 한 뿌리에서 영양이 공급되듯 저절로 한마음이 되는 거란다.”(대행스님)

1일 안양 한마음선원 큰법당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이국 땅 백안(鵬眼)의 재가 불자들이 무릎을 꿇은 채 스님과 법거랑(동시통역)을 하고, 문답이 끝나면 예의바르게 삼배를 올리는 장면이 연출된 것.

화제의 주인공들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에서 온 성지순례단 41명. 이중 교포 불자들이 제외한 대학 교수, 의사, 기업 임원, 대학원생 등 30여명의 독일의 지식인층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처음 접한 감동과 신심으로 연신 진지한 물음을 던졌다.

울덴버그대 랄프 교수는 하루에 100번씩 ‘주인공(主人空)’을 찾으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고백했으며, 주부인 이비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음 공부를 통해 간암을 이겨낸 사례를 들면서 이번 한국방문은 마음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라



◇독일 성지순례단은 1일 안양 한마음선원 법회에 참석, 대행스님과 수행문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의사인 힌스프라이게씨가 질문하는 장면.

고 토로했다.

베를린 자유대학병원 의사인 한스 프라게는 마치 마음의 고향에 있는 기분이어서 천국같다고 한국 신도들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후 영혼의 영적 진화와 지구

적인 에너지 고갈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행스님은 “서구인들은 밖으로 하나님을 찾던 믿음을 한 생각 안으로 돌리면 마음자리를 찾기가 쉽다”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내일

을 걱정하지 말고 할나할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생활선을 닦다 보면 모든 일이 여여(如如)하게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지난 9월29일 서울에 도착한 순례단은 이날 법회에 앞서 비엔·창덕궁·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보았으며 2일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치악산, 경주 남산 및 불국사, 청도 운문사, 양산 통도사, 지리산 쌍계사·칠불사, 합천 해인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실시하며 한국불교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낀 뒤 10일 출국했다.

순례단을 이끈 혜진스님은 “이번 성지순례는 물질만능주의의 소용돌이에서 헤매이던 서구 불자들이 갈망한 마음으로 무명에서 눈을 떠 해인을 얻으려는 구도의 길”이었다며, “한국의 산하와 고찰 순례를 통해 얻어진 불심이 더 많은 서구인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6년 웨셀도르프 카스트에 문을 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내년 8월11일 예선 부부가 합례에서 독일 대법회를 열어 99년에 이은 유럽의 한국불교 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종 단 소식

조계종

포교원 준중요원 선발

포교원(원장 정권)은 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조계종 스님으로서 4년제 대학(학사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준중요원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196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군인 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스님. 17일 오후2시 포교원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갖는다. (02)720-7060

태권도공원 발원 탐돌이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를 기원하는 법주사 탐돌이 행사를 2일 지명스님과 김중철 보은군수, 박대중 보은문화원장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 법주사 말사 신도 모두가 참여하는 보살계 법회와 함께 청주시립극악단이 영산회상(염불, 타령)과 태평무 등을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태고종

보우국사 탄신 699돌 다례

종조인 태고보우 원종국사 탄신 699주년 다례법요식이 18일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 태고보우국사 부도앞에서 봉행된다. 오전 11시 법종 타종을 시작으로 전통다례법요식의식으로 모셔지게 되는 이날 법회에는 인곡 총무원장 등 종단 원로 및 간부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02)745-2030

경기북부 중무원 수록제

경기북부중무원(원장 신명)은 17일 오후 1시 함탄강 국민관광단지에서 경기북부지역 수려한 자연과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수록제법회를 봉행한다. 수록제법회는 오후 1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원법회와 2부 영산대재로 나누어 진행된다.

천태종

태행사 관음불상 봉안식

의령 태행사(주지 각지)는 12일 오전 10시 관음불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55) 572-0108

월경사 홈페이지 개설

진주 월경사(주지 무인)는 사이버포에 주력하고자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월경사 홈페이지(www.ombara.or.kr)에는 월경사 연혁과 소식, 각 신도단체 소개, 자유게시판, 방명록, 전각안내와 흥분산 구인사가 있는 길 등이 들어있다.

진각종

경주·포항 밀교법회

경주·포항 교구 밀교교리대 법회가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의 몸이다’는 주제로 9월 30일 경주 서리별 문화회관에서 1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혜정 종학연구실장은 “진정한 참회는 마음을 하는 것, 즉 자성참회”라는 것을 강조하며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것은 법신부처님의 몸이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육자진언 ‘옴 마니반메훴’이라고 강조했다.

초동종

정각사 통일발원 법회

정각사(주지 해월)는 13일 오후 2시 울산 송하체육관에서 종정 지명스님을 중명법사로 남북통일 속성취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총화종

충남북 중무원장 청해스님

1일 천안 민경사에서 대전시 및 충청남북도의 사찰 스님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전·충남북 중무원장에 청해스님(민경사 주지)을 선출했다.

성철스님 7주기 추모재

7일간 참회법회...11월3일 기념관 낙성식

오는 17일(음력 9월20일) 성철스님 입적 7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마련된다.

해인사 백련암은 10일 오전 7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7일 밤 7일 낮 동안 스님을 추모하는 ‘칠일 칠야 참회법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행사를 갖는다.

이번 참회법회에서는 2시간에 1천배씩 칠일 낮밤 동안 절을 해 팔만사천배를 회향함으로써 남북평화통일과 일체 중생의 행복을 발원하게 된다. 16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는 3천배

참회기도를, 칠일 칠야 참회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스님 열반일인 17일 오전 10시30분 해인사 대강당에서는 법회를 마무리하며 추모재를 갖는다.

또 백련불교문화원은 12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스님의 상징였던 원탁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초청, 법문을 듣는다. 11월 3일 오전 11시에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스님의 생가터에 조성된 기념관과 견외사(劫外寺) 낙성식을 거행한다. 김재경 기자

천은사 통일교육장 된다

이승휴유지지 성역화 일한

민족역사서사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저술한 장소인 삼척시 미로면 두타산 천은사 일대를 새로운 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승휴선양사업회(회장·장울병 민주당전고위원)와 천은사(주지 일봉)는 4일 이승휴추모 다례재를 열었다. 이날 다례재에서 천은사 주지 일봉스님은 “이승휴 유리지 제42호로 지정된 만큼 면모를 일신하는 성역화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휴선양사업회는 “동안선생이 《제왕운기》에서 한국·한국의 정체성은 단군역사사상과 단군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은 분단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

서귀포서 햇불대행진

제6회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햇불대행진이 7일 서귀포시 증문동 법정사와 증문초등학교 천제연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1918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법정사 주지 김연일스님 등 스님과 신도, 주민 등 4백여명이 일제에 항거해 봉기, 서귀포를 향해 진격하다 66명이 검거되고 이중 5명이 사망했던 대규모 사건으로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종 전국 최대 규모행진이다. 김재경 기자

미타사 지장상 점안

높이 41m 세계 최대

충북 음성 미타사(주지 명안)는 4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중명으로 이원종 도지사와 정산현군수 등 관원과 각급 기관단체장과 신도 등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지장보살상 점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점안식, 2부 개회식 및 법어, 3부 남북통일기원 합동영가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또 4부 행사로 세계 최대 지장대불 조성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가 불자 가수들과 미타사 합창단이 출연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점안된 지장대불은 지장보살상으로는 세계 최대이며 입불상으로는 국내 최대인 높이 41m(108척, 좌대 7m 포함)로 30년 국내 최대 입불상이었던 속리산 법주사의 30m높이의 미륵불(좌대 4m 포함)보다 훨씬 크다. 두께 2m의 시멘트로 만든 뒤 금이 섞인 금속으로 도장을 한 이 불상의 무게는 3000이며 지장보살상의 보주의 크기만도 지름이 2m나 된다. 불상 조성비는 17억여원.

미타사는 오는 2003년까지 성지 조성 불사를 추진, 앞으로 사찰용지 9만여평에 유료 양로원 건립 등 사회복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본지 279호 22면 참조〉 김재경 기자



◇5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부도헌다재.

문화향기 그윽한 통도사 개산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허)는 6일 개산 13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로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렸다.

6일 설법전에서 열린 개산대재 법요식에는 신허 주지 스님,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한 2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이어 오후에는 제 4회 괴불탱 특별전이 박물관 중앙홀에서 개막됐다. 또한 이날 통도사는 개산대재를 기념 스케치북 3천 여개를 제작, 어린이 불자들에게 나누줬다.

특히 5일에는 제2회 성보예술제 작품전, 부도헌다재, 괴불이운,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산사음악회 및 불자연예인 초청 공연 등 예년보다 한층 격조 높은 문화행사와 전시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통도사 자장암 전설의 금개구리 나타나



통도사 자장암에 최근 신라시대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길렀다는 전설의 ‘금개구리’가 나타나 이를 보려는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통도사측은 5일부터 열린 개산대재(開山大祭)를 앞두고 사찰내 관음전 뒤 바위에 놓인 금과공(金蛙孔)에서 금개구리가 거의 매일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천미희 기자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바른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워치드 김희균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F-P 016)228-2358
E-mail : bukba@kornet.net H-P (02) 396-2735

불자 정보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h3>포교당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전시 동구 흥도동 72-27 • 법당: 30평 삼존불탱화 신중탱화등 모든 시설이 되었음 • 전세: 25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p>042)627-5925 011)742-5925</p>	<h3>토굴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주 • 제가불자뿐 아니라 스님께 토굴과 명은 본인의 소유가 아님 • 시내에서 20분거리 • 토굴이랑까지 포장도로 완비, 계곡과 산세 수려함, 수영장이나 정진할수있는 연리 바람입니다 • 가액: 550만원 <p>054)771-4779/ 011)562-8640</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선광사 • 평수: 209평, 379평 • 가액: 7500만원(답사후 절충) • 특징: 탐 도량 <p>033)732-3152 011)363-3193</p>	<h3>암자 안내</h3> <p>용도 변경 가능 (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계곡 물이 최고 좋음 • 가액: 답사후 절충 <p>031)582-0635</p>	<h3>사찰(급)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안양 대림대학 뒤 비봉산 입구 • 부 지: 160평 신축 가능 • 국유지: 200평 사용 함 • 가 액: 3억 5천만원 <p>011)340-6869</p>
<h3>포교원 운영하실 분</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 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차장 (주차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 주변대단원 AP.T단지 및 주택지의 도심포교에 적합함 <p>02)436-3647</p>	<h3>토담집 개조 암자로 토굴·기도터 최적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위 우보 10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시시면 반드시 팔려버터 - 미당 넓고 뒷산 명당지 ○ 전세, 5년 분납도 가능 ○ 처음 사찰 운영하실 분도 가능 <p>사찰, 참인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시찰정보: 053) 982-6778 핸) 011-812-3679</p>	<h3>토굴터 안내</h3> <p>장엄한 산세, 토굴마당까지 도로 완비, 전용허가 취득, 평토 직입 안로, 전망 좋은 최고의 토굴터</p> <p>347평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경남 함양)</p> <p>02)423-5730/588-7878 017)301-1970</p>	<h3>사찰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에서 약25분거리) 입야 2만평 • 차량 진입 (포장도로) • 중수 최적 명당 사찰터 • 가액: 7천만원 (가절충) <p>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주 구천동에서 5분거리) 입야 1천평 (5천만원) 017)542-7010</p>	
<h3>대사찰지 사찰양도(전세)</h3> <p>법당 5존 불로상 석굴암 7척척물 굴안 50m 50평5층탑 간음보살 아미타불 山神 藥 酒사채 34평 사찰부지 1,200평 양도가 2억5천 미륵불지 조성완료 도로포함 500평 법당 요사채 조성 가능지 500평 포함 1억 별도임 직접 스님 보살 30%감 전세분은 2-3년 후 사찰 매입가능한 분 영입 창건주 노령으로 직접 대사찰 조성할 분 연</p> <p>충주 033)848-176 / 019)848-1766</p>	<h3>포교당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40평 방3개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p>018)385-1234</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군산시 성산면 상오리 상안 • 대지: 720평 • 법당: 50평 • 신산과, 요사채, 침실과 미륵종각 선방 • 가액: 4억5천 (절충 가능) <p>011)675-9828 063)453-2970</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도 영월군 하평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지다. • 평수: 600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현타 • 특징: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맥호가 뚜렷하고 통행이 알뜰하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2억 5천 <p>018)533-7780</p>	